

계명의 교화 이팝나무 꽃

The Retusa Fringe Tree Blossoms

11

원산지가 한국인 이팝나무는 암수 딴 그루의 물푸레나무목 쌍떡잎식물이다. 5~6월이면 가지 끝마다 갈라지는 꽃대에서 흰 꽃이 만발한다. 이팝나무에는 한국인의 애환이 담겨 있다. 이팝은 이밥, 흰 쌀밥이라는 뜻이다. 나무의 흰 꽃이 쌀밥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양식이 귀하던 시절 선조들은 농사가 잘되어 쌀밥을 먹고사는 것이 원이었다. 또 꽃 피는 시기가 입하(立夏) 무렵이어서 '이팝'이 되었다는 설도 있다. 계명대학교가 이팝나무 꽃을 교화로 삼은 것은 이 동산의 모든 일원이 봄날에 만개하는 이팝처럼 아름답고 순정하며 유익한 인재가 되기를 소망해서이다.

The Retusa Fringe Tree (*Chionanthus retusus*), whose place of origin is Korea, is identified with the sorrows of the Korean people. Every May and June, white flowers emerge and bloom from each splitting flower stalk. These white flowers resemble cooked rice and give the tree its Korean name: Ipap. This refers to the longing of our Korean ancestors (in times when food was scarce) to eat cooked rice after harvesting a good crop. Another theory of the tree's etymology is that the flowers bloom at the time of Ipha (the onset of summer according to the lunar calendar). Keimyung university has chosen the Retusa Fringe Tree blossoms as the University Flower, reflecting a wish for every member of the Garden of Keimyung to stay as beautiful and pure as full-blown Ipap flowers in spring, while growing to be valuable individuals.

▶ 계명의 교화 이팝나무 꽃

Retusa Fringe Tree Blossoms: The Keimyung University Flower





이팝나무 ▲
Retusa Fringe Tree

계명의 교석 LAPIS LAZULI (청금석, 靑金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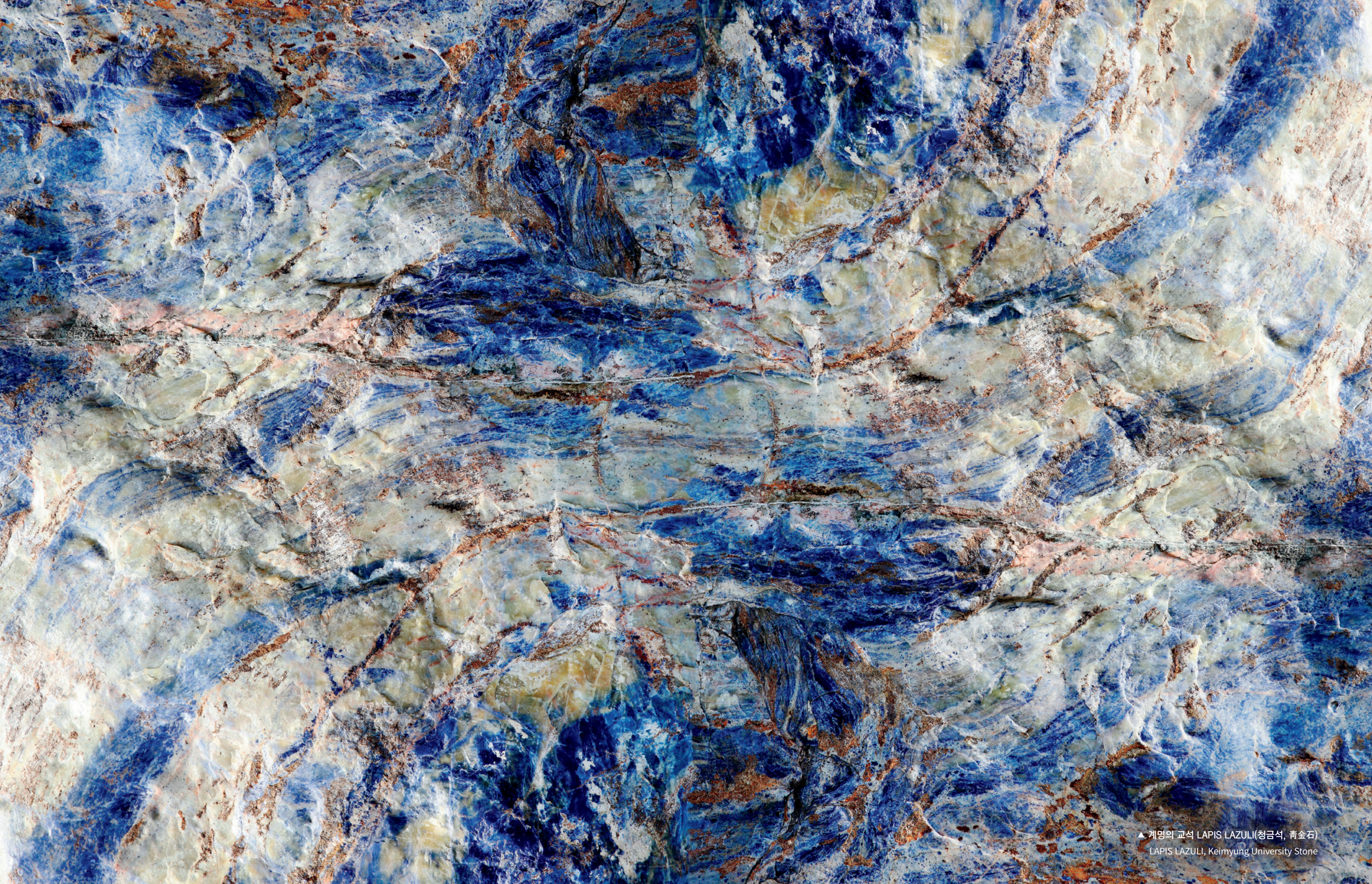
LAPIS LAZULI, Keimyung University Stone

청금석(靑金石)은 신석기 시대부터 인류의 역사를 통해 오래 사랑받아 온 보석으로 파란색이 섞인 신비로운 문양은 우주적 진리를 닮았다 하여 성스러운 돌로 간주되었다. 청금석은 갈대아 우르 지역(기원전 40세기)의 고분에서 출토된바 있고 『길가메시 서사시』(기원전 18세기)에 언급된 바 있으며 투탄카멘(기원전 14세기)의 황금 마스크에 사용되었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돌로도 알려져 있다. 파란색은 계명대학교의 교육이념인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나라'를 지향하며 세상의 다양한 흐름 속에서 인간의 궁극적인 가치를 구현해나가는 계명의 의지를 상징한다.

Lapis Lazuli has been one of the most highly cherished precious stones in history, and ornaments made of the stone have been discovered at neolithic burial sites. Jewelry containing the stone has also been found in the Chaldean Ur (4th millennium BC) and the Sumerian (3rd millennium BC) regions. Also mentioned many times in the Old Testament, it is known as the stone of the Ten Commandments. The deep, celestial blue color of the stone represents the educational precept of Keimyung University, "For the Kingdom of Truth, Justice, and Love." It also reflects the will of the University to pursue the highest ideals on the basis of truth, even in turbulent times.

▶ 계명의 교석 LAPIS LAZULI(청금석, 靑金石)
LAPIS LAZULI, Keimyung University Stone





▲ 계명의 교석 LAPIS LAZULI(청금석, 靑金石)
LAPIS LAZULI, Keimyung University Stone

기념시비(詩碑)

A Poetic Monument

13

성서교정 동산도서관 앞에 기념시비(詩碑)가 하나 있다.

본 대학 설립에 중추역할을 하였고 제3대 학장으로서 종합대학으로의 성장을 주도한 초대명예총장 동산 신태식 박사의 회갑을 맞아 오랜 지인이었던 시인 박목월 선생이 지은 헌시이다. 서예가 근원 김양동 교수가 옮겨 썼다.

이 시비는 지역 기독교 교육을 위해 평생을 바친 고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계성학원, 신명학원, 계명대학교 3개 학교법인 이사회가 고인의 서거 3주기인 2007년 공동으로 결의해서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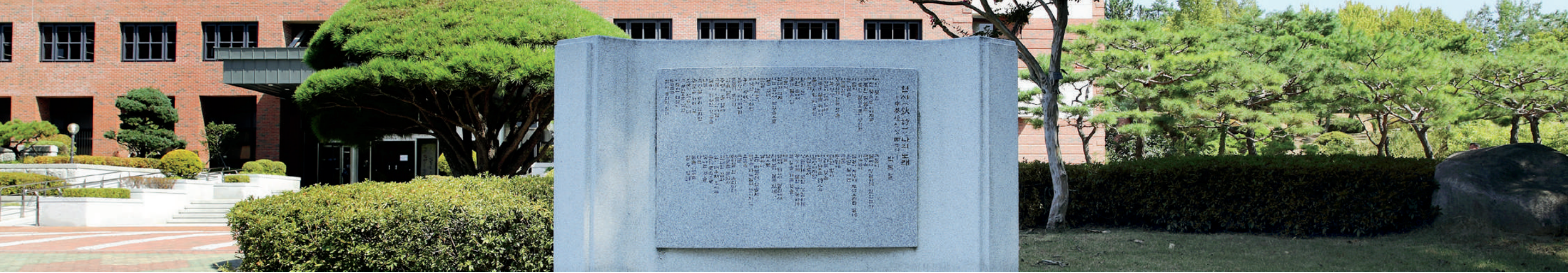
A poetic monument stands in front of the University's main library, which bears Dr. Synn Taisik's literary name - Dongsan. The monument is inscribed with a poem dedicated to Dr. Synn, the first president emeritus of Keimyung University, who was instrumental in its elevation to university status, on the occasion of his *hoegab*, or sixtieth birthday. The poem was written by Park Mokwol, arguably the best loved, grand national poet, the poeta laureatus populi of Korea of the mid-twentieth century. The calligraphic transposition of the poem was performed by Prof. Kim Yangdong of Keimyung University.

The poetic monument was dedicated to Dr. Synn's memory by a joint resolution of the boards of trustees of Keisung School, Shinmyung School, Keimyung College and Keimyung University in 2007, the third memorial year of his passing, as a lasting testimony to his life-long dedication to Christian education in the region.

▶ 기념시비(詩碑)

A Poetic Monument





나의 노래 - 신태식 선생 회갑에

박목월

어진 뜻은
어진 뜻으로 이어지고
거룩한 말씀은
거룩한 말씀으로서 영원한,
사람의
큰 길을
한결같이
꽃꽂하게 걷는 분을
나는 평생
지켜보아 알고 있네.
의로운 일을 위해서
불꽃처럼 타고르던
그분의
환한 눈.
시련 속에서
굳게 입 다문
그분의
인내와 의지.
나는 옆에서 보았음으로
알고 있네.
만일
나의 證言이
미약한 것이라면
우리 母校의

돌덩이 하나하나가
풀 포기포기가
입을 열어
증명해 줄 걸세.
그분이 이룩한 사업이
얼마나 위대한 것임을
나는
측량할 도리 없지만
啓聖을 거쳐 갈
조국의 젊은 세대…
그 무한으로 뻗힌
아득한 대열이
두고두고
밝혀 주리라 믿네.
그분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가.
그것은
하느님이
일일이 치부해 두셨으리라 믿네.
은발 빛나는
그분
등 뒤에
환한 빛이
어리는 것은

나와 같은 詩人的
환상이지만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또한 성실하게
꽃꽂하게 또한 꽃꽂하게
큰 길을 가는 것을
나는
옆에서 뒤에서 멀리에서
지켜보아 알고 있네.
앞으로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을지,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지만
오늘은
그분
머리칼 한 오리마다
의로운 근심과
원대한 꿈과
신이 깨우쳐 주시는
슬기로움으로
빛나는 것을
나는
눈을 감고도
알 수 있네.

MY SONG - On Master Synn Taisik's Hoegab

Park Mokwol

Magnanimous will
is continued by magnanimous will,
holy words are
eternal as holy words,
there is a man I know well,
for I have watched
all my life
as he still pursues
erect and unwavering
the grand course of man.
Burning bright for
just endeavors
his
eyes flaming,
his lips firmly closed
in toil and travail,
I know of his
patience and will
as I have felt them
at his side.
If
my witnes is
deficient
every stone
every blade of grass
of our alma mater
will open its lips
and testify.
I have
no way of measuring

how great a work
he has performed,
but the fatherland's young generations
that will pass through Keisung...
the grand rows
extending into eternity
will enlighten
and enlighten again
how faithfully
he lived
so that I believe
God has
recorded every grain of his work.
With silvery hair
already gleaming
behind his back
that bright light
permeating around him
may be a phantasy
of a poet like me.
As a man
faithfully and still faithfully,
unbowed and still unbowed,
I know him
as I have watched
near, far and behind.
How much longer
in the future
he will stay
is but the Lord's will.

아담스채플 파이프 오르간

The Pipe Organ

14

창립 100주년에 설치한 아담스채플의 파이프 오르간은 독일 베를린의 Karl Schuke사가 디자인하고 제작한 것이다. 이 파이프 오르간은 3,800여 개의 파이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면에는 세 개의 왕관 아래 각각 7개의 큰 파이프가 자리 잡고 있다. 세 개의 왕관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며 각 왕관 아래 7개의 파이프는 창조주 하나님을 매일 매주 찬양한다.

The Pipe Organ in the Adams Hall of Worship and Praise, installed on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University, was designed and manufactured by the Karl Schuke Company of Berlin, Germany. The entire Organ consists of about 3,800 pipes, while the front facade is designed to present three sets of seven large pipes all equally arranged under three crowns, the center set and crown being higher than the other two. The three crowns represent the Holy Trinity, while the seven pipes under each crown refer to the seven days of creation, in praise of their Creator.

▶ 아담스채플 파이프 오르간
Pipe Organ, Adams Chapel





▲ 아담스채플 파이프 오르간
Pipe Organ, Adams Chapel

억새

Miscanthus

15

억새는 키가 2m 이상 자라는 생명력이 강한 여러해살이풀이다. 9월 초순 줄기 끝에서 송이 꽃술이 모여 고깔 꽃술을 이루고 피어나는데, 색깔은 연보라색이거나 옅은 밤색이다.

캠퍼스를 성서로 이전해 오던 초창기에는 교정 동남쪽 늪지(현 Keimyung Art Center 근처)에 군락을 이루어 살고 있었으나, 점차 사라지게 된 것을 교직원들이 아담스채플 뒤 언덕 길에 옮겨 심어 놓았다. 지금은 언덕 위에 새로운 군락을 이루어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늦여름에서 초가을까지 언덕길 양 옆으로 솟아오르는 억새풀의 꽃술은 장관을 이룬다.

Miscanthus is a strong stemmed, reed-like plant that lives in wet lowlands as well as in high hills for many years and can grow taller than two meters in height. In early September, the plant flowers and its fuzzy pistils and stamens turn from white to light purple.

When the University first began to move to the present campus, the south-eastern corner, near the Keimyung Art Center, was a wetland field of miscanthus plants. Slowly, however, the plants began to wane and almost disappeared. But around the turn of the millennium, the University staff members transplanted the endangered plant along the roadside on the hill behind the Adams Chapel. Miscanthus has now become one of the most vigorously flourishing plant forms on campus, and the fantastic petals against a background of blue autumnal skies is a wonder to behold.

▶ 억새

Miscanthus



짚신

Straw Shoes

1970년대 중반, 계명대학교가 아직 단과대학으로 구분되어 있던 시절이었다.

‘대학’이라면 종합대학교라야 하고, 그것도 국립이어야 하며, 중앙에 위치해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하던 후진국 시절이었다. 그런 시절에 지상 최고의 학문과 교육의 전당으로 오인되어 온 서울의 모 국립대학교에 진학하려다 낙방한 한 학생이 있었다. 집은 지방의 군소도시에서도 한 시간이나 더 들어야 하는 산간벽촌에 있었고, 부모는 매우 가난하고 글 한 줄 못 배운 농사꾼이었다. 그 학생은 이웃마을에서 중학교까지 마치고 좀 더 큰 중소도시로 나와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수재’라는 말까지 들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학생은 청운의 뜻을 품고 서울 소재 국립대학교에 응시하였으나 불행하게도 낙방을 하고 말았다. 집안이 어려워 재수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학생은 지방 사립 단과대학인 계명대학의 후기 입시를 거쳐 장학생으로 들어왔다. 입학은 하였으나 그의 마음은 표현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좌절감과 종전에는 상상도 못한 수치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가난하고 무식한 집안 배경과 평생의 소원이었던 특정 국립대학교로의 진학 실패가 시골 출신 청년에게는 전 생애의 실패와 동일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좌절감과 수치감에 휩싸여 그 학생은 구제불능 상태가 되었다. 등록은 했으나 젊음과 이상에 찬 대학생활은 완전히 포기했고 그저 마지못해 학교에 나가는 상황이었다. 어느 누구에게도 쓸모없다는 열등의식의 종양이었고, 더구나 자기 자신에게서 아무런 가치도 찾지 못하는 인간 패배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한두 학기가 지나갔다. 그러는 동안 그 학생은 다른 동료 학생들과 주위 교수들과의 정상적인 대학생활권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잘난 제자든 못난 제자든 인간적인 교육을 통해 스승과 가까워지는 법이고 그 학생도 예외는 아니었다. 교수들의 관심과 지도 덕분으로 그 학생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기 시작하였다. 좌절감과 수치심도 조금씩 극복되었고 학교생활도 정상화되어 갔다. 매달 집에서 보리쌀 한 말을 짚어지고 대구로 나와 공부하는 자취생활도 어

16

느 정도 질서와 안정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 후 그 학생은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4년 전에 패배의 쓴 잔을 마시게 하였던 그 국립대학교 대학원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한 국에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고 난 후에는 미국의 최상위급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지금은 서울의 유수한 대학에서 모범적인 학자-교육자-행정가로 재직하고 있다.

여기서 계명 역사의 한 토막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학생이 학사모를 쓰고 졸업하던 날 자기 모교에 전한 선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이다. 그 학생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참으로 비참하고 쓸모없어 보였던 자기 같은 학생을 인내와 사랑으로 건전한 대학 학사로 만들어준 모교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었다. 물론 그에게나 그의 집에는 물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전혀 없었지만, 대학생활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터득한 그 학생은 뭔가 특별한 선물을 생각하고 있었다. 방향하던 자신을 올바른 사람으로 키워준 모교에 가장 적합한 선물은 이 세상에서 그 학생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생산해 낼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이어야 했다. 그것은 여전히 무식하고 무지하게 가난한 그의 부모님이 손수 삼을 수 있는 짚신 두 켤레였다. 그 짚신은 지금도 계명대학교의 소중한 보물 중의 하나로 보관되어 있으며, 학교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명대학교는 사람을 본질적으로 키우는 곳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In the mid-1970s, when the University was still officially designated as a college, an institution presumed at the time to be far inferior to a university, Keimyung received a freshman student from a small village in the local province. In pre-collegiate schools he had always been the brightest of his class, and he naturally became not only the prospect of great achievement for his alma mater, but also the beacon of great promise for his native village.

Before he came to Keimyung, he had applied, in accordance with the expectations of his teachers and parents, to a reputable national university in Seoul, purported to be ‘the best’ tertiary institution in Korea. But, unfortunately, he was rejected, and he came to Keimyung by default. Throughout



▲ 짚신
Straw Shoes

his school days, entering that national university had been the goal of his life, the reason for his existence. But now, his dreams were shattered. Although registered at Keimyung, the college was a place of shame for him. Every day, every class was a painful reminder that he was a pathetic failure. He felt he had profoundly disappointed his ancestors, his parents, and his teachers. During the first semesters at the college, he literally was and he actually lived as a tragic character, completely crushed by the larger society. To add insult to injury, the other students all seemed to have good parents and decent homes, while his own parents were uneducated and extremely poor. He was ashamed of his parents just as much as he was of himself, and this state of mind made an almost untouchable social failure out of him.

So the days and the semesters went by. Gradually, however, he came into meaningful contact with his colleagues and with his professors. Ever more gradually, he began to return to a life of normalcy, walking with his shoulders relatively straight, so that by the time he became a senior, he was a veritable Keimyung scholar. Upon graduation, the national university that had once rejected him for baccalaureate studies, now recruited him for graduate study with a fellowship. He continued his advanced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and

finally returned to Korea after his doctoral studies were over. He is now a very respected scholar-administrator at a fine university in Seoul.

The reason for mentioning this little incident in the history of Keimyung is not to emphasize how a poor student became a learned scholar, but rather to relate the incident to the gift he presented to Keimyung at the time of his graduation. Even to the student himself, his collegiate life had been a long journey from being a totally defeated, hopeless freshman from some distant village to becoming a decent, moral and intellectual human being. He wanted to present a gift to the alma mater that had almost recreated his character and brought him to his feet. Regardless of the fact that neither he nor his family had anything of material value, he was sufficiently mature to envision a different type of gift. This was the most valuable product created by the person he most respected - his father. The most valuable product that his still very uneducated and poor father could produce was two pairs of handmade straw shoes. This pair of straw shoes is now one of the most cherished treasures of the University, visibly reminding all who frequent its grounds and halls that the University is here to transform all its students into young men and women of substance.



청라언덕

Cheongna Hill

17

미국 북장로교회 소속 선교사들은 일찍이 청라언덕 일대를 대구 선교의 중심으로 삼았다. 청라는 푸른 담쟁이넝쿨을 뜻하는 것으로, 청라언덕은 대구 출신 작곡가 박태준 선생을 재조명하면서 알려졌다. 박태준은 계성학교 시절 인근 신명학교에 다니던 '백합 같은' 한 여학생을 짝사랑하였는데 훗날 그의 첫사랑을 모티브로 이은상(李殷相, 1903~1982) 시인이 가사를 쓰고 박태준이 곡을 붙여 「동무생각」이라는 노래가 탄생하였다. 솔로몬의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듯 백합은 순결을 의미하는 꽃이자 마리아를 상징하는 꽃이다. 「동무생각」은 청년의 순수한 이상이 담겨있는 노래로 해방 후 국정교과서에 채택되면서 더욱 널리 불려졌다. 동산의료원과 대구 중구문화원은 2009년 이곳을 청라언덕으로 확인하고 「동무생각」 노래비를 세웠다.

The Cheongna Hill area was the base of Christianity when the missionaries of the Northern Presbyterian Church of the USA first came to settle in the community of Daegu. Cheongna refers to green ivy, and Cheongna Hill has become known through research into the Daegu-born composer Park Taejun. While a student at Keisung School, Park had a crush on a 'lily-like' girl who attended the neighboring Shinmyung School. Later on, using this unrequited first love as a motif, the poet Lee Eunsang (1903~1982) put the episode into lyrics and created a song called 'Dongmu Saenggak' (Thoughts of an Old School Friend), using a melody composed by Park Taejun. The lily appearing in The Song of Solomon is a symbol of chastity and cleanliness, and the flower also symbolizes the Virgin Mary. 'Dongmu Saenggak' is a song that describes the pure ideals of a reliable young man, and became widely popular when it was included in government-designated textbooks after Korea gained independence from Japanese occupation. In 2009, the Dongsan Medical Center and Daegu's Jung-gu District Cultural Center confirmed the location of the song to be Cheongna Hill and erected the 'Dongmu Saenggak' song memorial stone.

▶ 동산캠퍼스 청라언덕, 동무생각 노래비

The 'Dongmu Saenggak' Song Memorial Stone,
Cheongna Hill, Dongsan Campus





대구 최초의 서양 사과나무

The First Western Apple Tree in Daegu

18

미국 북장로교회 소속 존슨과 아담스 선교사는 1899년 제중원을 개원하고, 1906년에는 계성학교를, 1907년에는 신명학교를 설립하였다. 존슨은 1900년경 미국 미주리 주의 유명한 묘목원에 3개 품종(미주리, 스미스사이다, 레드베아밍) 72그루의 사과나무와 여러 종의 과일 묘목을 주문하여 동산동 자택 정원에 심었으며, 1910년경부터는 수확한 사과를 이웃에 나누어 주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대구 서양 사과나무의 효시이다.

이전에도 한반도에는 토종 산능금이 있었지만 떼고 쓴맛 때문에 과일로서 가치가 없었다. 그러나 미국산 사과나무를 접목하여 개량된 품종이 대구를 중심으로 퍼져나갔고, 이것을 계기로 하여 대구는 사과의 도시가 되었다.

동산의료원 안 선교박물관 근처에 사과나무 한 그루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이 나무가 바로 존슨이 심은 사과나무의 2세목이다.

Dr. Johnson and Dr. Adams, missionaries from the Northern Presbyterian Church of the United States, opened Jejungwon in 1899 and established Keisung School in 1906 and Shinmyung School in 1907. By 1900, Dr. Johnson had a new residence with a large garden, with many fruit trees, including 72 apple trees of three different varieties (Missouri Janet, Smith's Cider, and Red Beaming), that he had ordered from the then famous Stark Brothers Nurseries in Missouri. He successfully cultivated these trees in a new environment. Thus, the very first Western apple tree took roots in Daegu.

Korea had our own indigenous crab apple trees, but the fruits were too bitter and sour to be of immediate use. In due time, the branches from the mother apple tree grafted onto the native crab apple trees became the new apple trees, and the apples from these new trees made the City of Daegu the apple capital of Korea.

On the Dongsan Medical Center campus there grows, near the Medical Museum, a 2nd generation apple tree, from the apple tree planted by Dr. Johnson in 1900.

▶ 대구 최초의 서양 사과나무

The First Western Apple Tree in Daegu





대구 최초의 서양 사과나무 ▲
The First Western Apple Tree in Daegu



의학도서관

The Medical Library

19

의학도서관의 역사는 제중원이 종합병원으로 승격하여 도서관을 만들었던 19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내 최초로 시도한 높이 10m, 길이 16m의 초대형 벽면서가에는 1890년대부터 수집한 7500여권의 의학 전문서적이 뽐낼 수 있다. 3층 높이의 벽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서가가 된 셈이다. 생명을 구하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아름다운 책의 집은 환자의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하는 진정한 의술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의학도들이 치열하게 공부하는 지성의 연금장(鍊金場)이며, 미래의 의사로서 양심과 품위를 지키고 자기완결을 지향해나가는 사색의 공간이기도 하다. 의학도서관의 책들이 뿜어내는 무거운 향기는 생명의 의미와 가치를 단적으로 표현한다.

The history of the Medical Library dates back to 1905, when Jejungwon was elevated to the status of a general hospital and the library was built. The 10m by 16m mega bookshelves of the library, the first of their kind in Korea, house over 7,500 medical reference books collected since the 1890s. They take up an entire wall about the height of a three-story building, which has become a massive bookcase. This house of books is equipped with all the available information about saving lives and is a place of fierce intellectual alchemy for medical students, whose aim is to heal both the bodies and minds of patients in their pursuit of true medical practice. It is also a place of contemplation for those who aim at self-fulfillment while upholding their conscience and dignity as future doctors. The weighty scent radiated by the books in the library truly expresses the significance and value of life.

의학도서관 ◀

The Medical Library



총학생회 활동

Student Council Activities

20

총학생회는 학교의 오랜 전통인 '계명1%사랑나누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학생회 임원들은 자신들의 장학금 1%를 모아 '계명1% 장학금나누기' 활동을 주도하여 왔다. 이 활동은 호응이 크고 확산 속도가 빨라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해마다 봄에는 '계명인 걷기행사'를 개최하여 수천 명이 학교 주변을 걸으며 화합을 다지고 환경정화운동을 펼친다. 스승의 날에는 미화원과 관리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청결 캠퍼스를 조성해준 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전한다. 이밖에도 각종 사고와 재난 지역을 찾아가 성금을 전달하고 위로하며 봉사와 구호활동을 펼친다. 총학생회는 네팔, 라오스, 일본 등 해외 지진 피해지역에도 구호성금을 보내며 활동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The Keimyung University Student Council actively participates in the university's long-standing tradition of the 'Keimyung 1% Love Sharing' movement. Student executives took the lead in the 'Keimyung 1% Scholarship Sharing' campaign by donating 1 percent of their own scholarships. Since this trend has met with a positive response and is rapidly spreading, it is likely to be extended to general students. Every spring, the 'Keimyung Walking Event' takes place, when thousands of students walk around the campus in unison and join in cleaning the environment. On Teachers' Day, environment cleaners and janitors are served food as a token of appreciation for their work in maintaining a clean campus. In addition, the Student Council has also joined in many charity and relief activities. While visiting and comforting the victims of disasters, they deliver relief and provide support in the restoration of areas damaged by natural disasters. They have contributed to volunteer work by delivering disaster relief collections to overseas earthquake-stricken areas such as Nepal, Laos and Japan.

▶ 학생 봉사활동
Student Volunteer Activities





▲ 금연구역 지정 선포식 (No-Smoking Area Designation Proclamation Ceremony)



▲ 사은사문비 제막식 (Teacher Appreciation Monument Unveiling Ceremony)



▲ 환경의날 그린캠퍼스 리더 활동 (Environment Day Green Campus Leaders Activity)



▲ 환경의날 그린캠퍼스 리더 활동 (Environment Day Green Campus Leaders Activity)

BISA팀 자율주행자동차

BISA Team's Autonomous Vehicle

21

계명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BISA팀은 현대자동차에서 주최하는 제13회 미래자동차 기술공모전 자율주행자동차 경진대회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하였다. 1여년이 넘는 대회 기간 동안 BISA팀은 안전에 초점을 두고 차량을 개발했으며 속도와 정확성, 장애물을 인식하는 능력과 안전주행으로 최종우승을 이루어냈다. 2008년 BISA팀은 '간단하고 빠르고 정확하고 안전한 차량개발'을 목표로 팀을 결성했다. 이들은 낮에는 차량을 개발하고 밤에는 실험실 밖으로 나와 개발한 차량을 실험하며 상상의 세계를 현실로 만드는 기술발전의 최전선에서 뛰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지만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달려왔기에 노력과 열정이 빛을 발할 수 있었다. 이들의 꿈은 미래 기술의 현실화를 앞당길 것이다.

In the 13th Next Generation Vehicle Technology Contest hosted by the Hyundai Motor Group, Keimyung University's BISA Team of undergraduate students was awarded the all-round first prize. During the contest which lasted over a year, the team focused on safety in developing their vehicle, and came off as the final winner due to their vehicle's speed, accuracy, obstacle recognition and safe driving. The BISA Team was formed in 2008 with the aim of 'simple, fast, accurate and safe vehicle development.' They spent their days in developing the vehicle and their evenings in testing it outside the laboratory, as they endeavored to realize a world of imagination at the vanguard of technological progress. Despite numerous failures and frustrations, their constant efforts and passions, along with strict self-regulated standards, enabled them to actualize their great talents. Their efforts will lead to the realization of future technology.

▶ BISA팀 자율주행자동차
BISA Team's Autonomous Vehicle

